

# 간이역과 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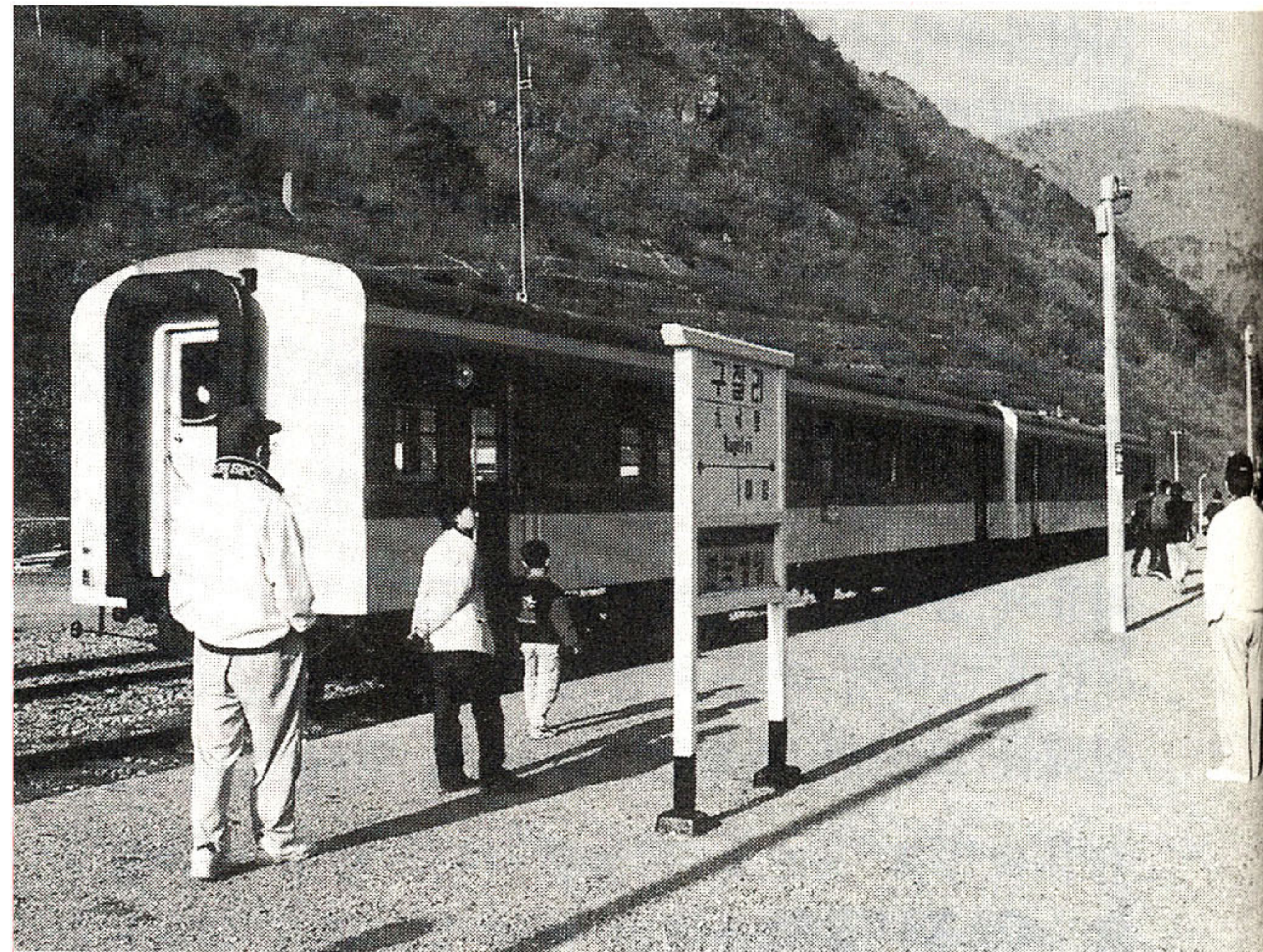
**구** 절리를 아십니까? 첩첩 산길을 굽이굽이 돌고 돌아 나타나는 산 속 끝마을. 2백 여 가구에 4백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산촌이다.

구절리는 오지마을에 속하지만 기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 문명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 인근의 태백, 사북과 함께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지금은 산자락을 검게 물들인 폐광지가 을씨년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리. 태백선과 정선선이 갈라지는 증산역에서 문곡과 정선을 거쳐 마지막으로 닿는 역이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탓에 아직까지 무공해 여행지로 남아 있다.

겨우 40~50명이 공동이를 비집고 앉을 수 있는 낡은 비둘기호는 증산역을 출발해 별어곡-선평-정선-나전-여량역을 지나면서 갖가지 비경을 보여준다. 차창 밖으로 눈길을 주고 있노라면 우리 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랄까. 마지막 구절리역에 닿기까지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로 연신 안부를 주고받는 이곳 토박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정겹기 그지없다.

구절리역에 내리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대부분이다. 등산복 차림을 한 사람들은 노추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몇몇 이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폐광 잔해를 바라보며 이 지역의 옛 영화를 열추 더듬어보기도 한다.

구절리는 신라시대 설총이 학문을 닦았던 유서 깊은 곳이다. 강원도 무형



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 마을을 에두른 노추산(해발 1,322 m)은 그 수려한 산세로 해서 등산객들이 심심찮게 찾아온다. 노추산이 등산객들에게 매력적인 산으로 꼽히는 까닭은 기차(비둘기호)를 통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추산은 강원도 정선군 북면과 강릉시 왕산면의 경계에 있다. 노추산이란 이름은 노나라에서 태어난 공자와 추나라에서 태어난 맹자를 기려 지은 것이라 한다. 노추산 서쪽 능선 아래에는 의상대사를 비롯해 설총, 율곡 이이선생의 수학했다는 이성대가 있고, 대승사와 오장폭포, 자개골들이 명상하듯 숨어 있다.





# 만나는 곳

김 동 정 / 여행길리스트



이성대에는 이따금씩 치성을 드리러 온 사람이 기거하기도 한다. 그 안에 설총과 율곡의 위패를 모셔두었고, 아래층에는 방이 꾸며져 있다.

노추산 산행 기점은 정선선의 종착역인 구

절리. 구절리 역전에서 도로를 따라 2km 쯤 가면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 길로 1km 쯤 더 가면 대승사로 드는 절골 입구. 절골 안으로는 광산 도로가 이어지며 여기서부터 산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중간쫘(대승사에서 약 1.5km 지점)에서 샘터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샘터에서 오른쪽 길을 택하면 신선대라는 암봉을 지나 노추산 정상으로 곧장 이어지다. 정상에 오르면 동쪽으로 동해 바다가, 남쪽으로 두타·청옥·함백산이, 서쪽으로는 상원산·가리왕산, 북쪽으로 오대산의 험준한 봉우리가 아스라이 다가선다.

한편, 구절리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엔 정선아리랑의 한이 밴 처녀상이 있다. 그 옛날 산에서 나무를 베어 뗏목에 싣고 하류로 운반하던 총각이 돌아오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다 망부석이 됐다는 처녀 얘기를 담고 있다.

비둘기호가 네 번째로 서는 인근 북실리에 는 2, 7일마다 정선 5일장이 선다. 장터에는 가리왕산, 노추산 등지에서 캐온 약초들과 토종 농산물들이 가득하다. 특히, 이곳 특산물인 황기는 인기가 좋다.

## ※ 가는 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동서울터미널에서 하루 4회 정선행 버스가 운행한다. 정선에서 구절리행 버스는 하루 2회(12:05, 17:40 출발), 태백선은 하루 5회 운행된다.

청량리역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통일호를 타면 증산역에서 오후 2시 15분발 정선선(증산-구절리)과 바로 연결된다. 14시(통일호)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도 구절리행 비둘기호로 갈아탈 수 있다.

문의 : 증산역 (0398-591-1069)

## ※ 숙박

구절리에 민박집이 여러 채 있다. 여량역 근처 아우라지 강변에 욕실이 딸린 깨끗한 객실을 갖춘 옥산장(0398-562-0739)이 권할 만하다. 정선 민박협의회(0398-562-017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